

광양·린츠시, 30년 우정 더 굳건하게

자매결연 교류주간 기념행사
내달 1일부터 광양예술창고
기념식·사진전·랜선투어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구성

광양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제 자매도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광양·오스트리아 린츠 자매결연 30주년 교류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광양시와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린츠알피네 제철소의 주선으로 1991년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해 30년간 우정을 지켜왔다.

광양시는 양도시의 시민에게 자매도시를 널리 알리고 우정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이번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교류주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교류주간 행사는 ▲기념식 행사와 개막식 ▲린츠시 홍보 및 우호교류 사진전 ▲오스트리아 영화관 ▲린츠 랜선투어 ▲시민 인터뷰 ▲화상 교류회의 ▲광양시 학생 미술공모전 '내 마음속의 오스트리아 린츠'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근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우려로 애초 계획했던 각종 축하공연, 전통문화 체험존, 지역 청년 프리마켓, 실내 영화관 등 일부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했지만, 면밀한 사전 준비로 가능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 기념식수, 사진전 등 주요 행사를 광양예술창고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동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마동근린체육공원 내에 대형 야외 전광판을 설치해 개막식 장면을 생중계한다.

개막식 장면과 시민 인터뷰, 린츠 랜선투어 등 영상은 주 행사장인 광양예술창

고 B동 컴퓨터 스크린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해 많은 시민에게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호 부시장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직접 광양시를 방문하고,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가 축하 영상을 보내올 만큼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된 점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린츠시장 일행이 2019년 5월 광양시를 방문해 실질적 교류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양사가 공동으로 교류주간 행사를 추진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 린츠시민에게는 광양시를, 광양시민에게는 린츠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아삭한 '태추단감' 수확
구례군이 최근 태추단감을 수확해 출하하기 시작했다. 태추단감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뒷맛이 일품이다. 또한 과피가 얇아 껍질 채로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른 단감에 비해 월등한 맛을 자랑한다. 저장기간이 짧아 수확하는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품종의 단감이다.

구례군이 최근 태추단감을 수확해 출하하기 시작했다. 태추단감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뒷맛이 일품이다. 또한 과피가 얇아 껍질 채로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른 단감에 비해 월등한 맛을 자랑한다. 저장기간이 짧아 수확하는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품종의 단감이다.

/구례군 제공

고흥,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

행복학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도시민 귀농인 통계 3위

고흥군이 최근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흥군은 매년 행복학교를 진행하며 전문강사 및 선도 농가를 초빙해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개소한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현재까지 7기에 걸쳐 24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고흥군은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2019년 9월에는

군이 직영하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은 물론 농촌체험 기회와 임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이미 90억 원을 확보해 귀향 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기업승계 자금, 청년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귀농·귀어 창업자금과 실태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1개년 규모인 4,673명이 고흥으로 전입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도시민 귀농인 통계'에서 2019년에는 전국 1위, 2020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전남취재본부=진종언 기자

여수, 도깨비시장 현대화 업무 협약

10억 투입 아케이드 교체 약속

여수시가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 도깨비시장 상인회와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6억 원, 사비 3억 5,000만 원, 민간 부담금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 낡은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해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도깨비시장 상인회는 2019년도 사업

을 신청해 선정됐으나 대부분이 임차상인으로 재정이 열악해 사업에 필요한 민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모 선정 시 여수시는 지방비 지원과 함께 사업을 직접 발주 시행키로 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민간 부담금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도깨비시장 상인회에서는 지난 5월 전남도에 공모 신청을 마쳤고, 전남도 선정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선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소방,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 '전국 1위'

순천소방서가 지난 27일 소방청에서 치러진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중앙대회는 각 시도별 대회를 거쳐 선발된 9개의 대표팀이 ▲소규모 주택 화재(서울, 대구, 전북) ▲소형선박 화재(전남, 부산, 경남)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시설 화재(울산, 경기, 경북)를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지난 6월 전남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순천소방서 연구팀은 국가·지방 어항 정박 소형선박 화재를 주제로 3개월간의 보강연구를 거쳐 중앙대회에 참가해 전남소방 최초로 전국대회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순천소방서 연구팀은 상황별 화재진압기법 매뉴얼 등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전국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에서 1위를 차지한 순천소방서 연구팀이 수상을 기뻐하고 있다. /순천소방서 제공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무관중 개막

내달 1일부터...실시간 송출
판소리 명창부 자격 기준 상향

보성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3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무관중 경연대회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은 진행하지 않고 추모공연, 경연대회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눠 명창·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 종합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연대회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유튜브 보성군·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판소리성지·보성문화원 4개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특히 판소리 명창부 본선 경연대회는 KBS1TV를 통해 10월 12일 전국방송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바깥에 명창

의 사회로 판소리 무형문화재인 정희석 명창, 이난조 명창, 서의철 가단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대회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전문업체가 경연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연자, 심사위원 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참석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부터는 판소리 명창부 참가 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대통령상

훈격에 맞는 명창 선정을 위해 보성군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바탕 완창자 또는 2시간 이상 발표회를 가진 자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참가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판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에는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20명의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심사 총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정권진, 성우항, 조상현, 성창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이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매년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해 전국 경연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데 힘쓰고 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여수 어린이급식센터, 코로나 극복 그림대회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1,000명이 참여한 비대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진행했으며, 어린이들이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갖도록 평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실천 내용을 주제로 그림

을 그려 제출하게 했다. 센터는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본인이 그린 그림이 새겨진 머그컵을 전달했다. 고상희 센터장은 "이번 그림 그리기로 아이들의 재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구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대식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지난 28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 제안,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결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선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광양 중마동 주민자치위, 걷기대회 이벤트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비대면 돌레길 걷기대회 현장 이벤트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손수건, 마스크, 물, 볼펜, 쓰레기봉투를 중마동민에게 나눠주며 워크온 가압, 마스크 쓰기, 함께 걷기, 쓰레기 줍기,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김진환 주민자치위원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함께 돌레길을 걷는 모습에서 활기 넘치는 중마동을 엿볼 수 있었다"며 "이벤트가 끝나는 날까지 돌레길 걷기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비대면 돌레길 걷기대회 이벤트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